

숭대극회 제30회 정기공연 및 개신교 선교100주년 기념공연



A Miller 作
최영譯
오세희演出

일시 : 1984년 5월 24, 25일 (4,7시) 26일 (3,6시)
장소 : 숭전대학교 웨스트 민스터 채플 (강당)
주최 : 숭전대학교 극예술 연구회
후원 : 숭전대학교 학도호국단 문예부

격려사



총장 강신명

개신교 선교 백주년을 맞는 즈음에 중대극회는 창조주가 이룩한 창조의 세계에서 진리와 봉사의 탑으로 대학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조란 뿌리내려진 자연 예술속에서 순수함을 찾아 남이 해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고 무에서 유를 이룩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원산은 신의 기적이며 인간에게 준 천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창조주와 인간의 꾸밈없는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30회 정기공연, 이제 선교 백주년을 기념하며 선 후배가 모여 노력하는 자리인 이곳은 젊음으로 발산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이며 문자화된 예술을 가상무대를 통해 실험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무대는 좁은 공간이고 이 실험의 전개는 이곳에서 끝나는 예술의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 충실히 면모를 좀더 넓은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우리 학도 예술인들의 의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작품을 표현하여 발표한다는 말은 그 말 자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A. Miller의 「도가니」의 무대에 같이 호흡하며 동참하면서 젊은이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통해 참된 대학인의 자성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나누며 중대극회의 앞길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초대의 글



극회장 차세훈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들의 세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생의 정석과 부조리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부분의 연결을 통해서 대작 A. Miller의 「도가니」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젊은 예술인들의 소리없는 철규였고 영원한 희망이었습니다.

연극을 사랑하고 진정 사람다운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 오서서 우리의 무대위에 새로운 열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Arther Miller

연극의 불모지였던 미국을 유럽으로부터 탈퇴시켜 미국연극을 유럽연극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렸던 작가이며, T. Williams와 더불어 현대 미국 연극계에 쟁쟁마차로 불리우는, 미국연극의 전통을 확고하게 토착화시킨 작가이다. Williams는 인간의 심리묘사 특히 性的 갈등을 섬세하게 다루었지만, Miller는 한 개인이 겪는 갈등과 좌절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외형화, 보편화 하는 데 주력하였다. 作家 Miller는 1915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으며 1929년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며 인간의 밑바닥 생활을 전전해 왔다. 그는 그 당시 체험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그의 작품속에 형상화했다. 그리하여 그를 「사회주의」극작가라고 칭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란 용어의 오염된 편견에 의해 색안경을 쓰고 그를 대체선 안된다. 「사회극」또한 Black Drama나 3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극으로 몰아서도 안된다. Miller의 「사회극」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평민도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성실한 극작가라면 사회극을 써야된다」는 그의 새로운 연극론은 더욱 전체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대표작은 「All my Sons(1947)」, 「The Death of Salesman(1949)」 「민중의 적(입센 작품각색) 1950」 「다리 위에서의 전망(1935)」 「실수 이후(1964)」

◆ 魔女裁判과 메카시즘

「마녀소탕」이란 영국의 고대왕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가끔 발생했던 것인데 1692년경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사추세츠주에 있는 항만도시로 신권 정치형태를 떤 세일럼에서도 재연되어 많은 선량한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개인의 행동이 지역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존재해 왔다

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Miller는 이 사건을 소재로 다루었다. 맥카시즘이란 1950~54년 사이에 맥카디 위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혹독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 저명인사들을 소환하여 공산주의와의 관련 여부를 캐내기 위해 자백을 강요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모함과 협박을 했다. Miller 자신도 이 위원회에 소환당하여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3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작가는 맥카시즘이나 나타난 미국의 광적인 사회풍조를 「마녀소탕」이라는 사실과 연관시켜 통렬히 비판하고자 했다.

◆ 作品에 나타난 Miller의 思想

Miller는 이 「도가니」란 作品을 통해 미국 정신 문화사의 치부인 "마녀소탕" 사건과 맥카시즘이 판치던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만을 비교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간의 흐름속에 存在하는 인간의 모임에 내재된 본성을 예리하게 파악했다는 의미로서 이 작품의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의 발단이 엄청난 결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와 질서와 불만, 이기심, 자기 과시욕이 세일럼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뒤엉켜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희생된 자일즈와 레베카, 프록터란 인물은 인간 존재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승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 Miller는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대표작인 「The Death of Salesman」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개인에 대한 집단이 힘이 모든 점에 있어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속에 반드시 법규가 생겨나기 마련이며, 그 법규는 지켜져야만 하는 숙명이 있다. 그러나 그 법규가 힘없는 개인에게 악용되었을 때 과연 악법도 법이겠는가? 밀려는 존 프록터를 통해 말한다. 「존 프록터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神조차도 그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다.



연출 오 세 환

옛날에 아주 지저분한 흙덩어리가 있었단다. 은하게 한쪽 구석에 박혀있던—그래, 바로 저쪽에 있었지—그 흙덩어리 표면에는 많은 동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징그럽게 생긴 「인간」이란 동물을 이 판치고 있었지.

그들은 두 발로 걸어다녔고, 앞 발의 끝은 다섯 갈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훔쳐먹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했지. 그리고 몸에 비해 대갈통만 발달하여 벼개없이는 제대로 잡도 못자는 괴물이었단다.

그런데 가장 구역질나는 것은 그들의 추한 모습모다는 행하는 짓거리였지. 스스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빼기면서도 모이기만 하면서 서로 모합하고, 물어뜯고 싸움질 등을 일삼는 거야. 누런 돌멩이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그런 저랄을 하더니만 돌과 쇠불이로 싸우던 것도 싫증났던지, 이상한 불덩어리까지 만들어 싸움질에 써먹었는데 결국 그 불덩어리 때문에 그들이 살던 흙덩어리 전체를 부숴버리고 말았지.

그렇게 멍청한 동물은 어떤 흙덩어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거야.
잘 살펴 봐!

지금은 뿐연 먼지밖에 보이질 않지? 다른 동물만 가엾게 희생되었지.

또 하나 배꼽잡을 일이 있었어. 그들이 멀망하기 직전에 내게 뭐라고 지껄였는지 아니? 글쎄, 내가 그들에게 노여움의 대가로 그런 벌을 내렸다는거야.

나원참!



애비 게일
(국문1)



존 프록터
(철 4)



엘리자베스
(불문1)



메리엘린
(영문2)



자일즈
(기계2)



파리스목사 유 근 화
(경영1)



베티 이 은희
(철 1)



해리서장 허 성 무
(건축1)



퍼트남 차 세훈
(전기3)



퍼트남부인 박 경
(영문2)



치버 유 한 주
(건축1)



덴획스 김 상 현
(건축2)



티투바 류 재 연
(독문1)



호순판사 송 기 범
(경영1)



해일목사 이 재 넝
(건축2)



“미의 전당”

루비 미용실

*파마 특별할인(승전가족에 한함)
(승전대학교 정문 건너편 골목)

TEL. 812-8584

공연연보



기획 이종규 엄세범

수고했다!

*최신컷트, 고급파마, 알뜰파격봉사

*우유파마(영양파마), 백파마전문



당신의 머리를 아름답게

CAT BEAUTY SHOP

TEL: 713-6408
(속대입구)



무감 장성수
(전산3)



조명1 박동주
(전기1)



조명2 이영민
(물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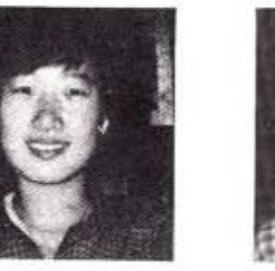
분장 문경애
(사3)



진행 이종일
(무역2)



무대장치 배비호
(전산1)



의상 김미경
(사사2)



소품 하승민
(전산1)



조연출 박경
(영문2)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극 "소인극 청제영을 나몰래 음의 말로" "대비국 노예의 탑"		
1923년 7 : 7, 21	전현국 "우리의 행진" "동백꽃" "설년후" "기계인간" 엘엔 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추진회 주관		
1 1965년 11 :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석영作 이반기희	전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외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와 썬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들엔·비체트作	김양기	
7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년목 삽화" 윤명조作 "담배해독에對해서" 안운·체홍作 "황금단지" (로마극) 푸라우터스作 "고도를 기다리며" 샤유엘·비체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저격형의 그림자" 산·오케이시作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펜더作	한영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펜더作 "기도" (소극장) F. 아라벨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막) A. 카위作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엄마와 봄"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비올터의 산책"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수	
14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광화범" Max. Frish作	안홍수	
2 1976년 10 : 29, 30, 31	"보식과 애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글로드·반·이델리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앵"	장·글로드·반·이델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충발"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수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데커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데커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데커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셋"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정재호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초문"	오대서作	황성준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글리크作	박영권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찬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김용학作 (신입생 환영)	이용섭
26 1982년 6 : 12, 13	"까리풀라" A. 까워作	지숙	
27 1982년 10 : 7, 8	"웨도우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불萊코메디" 피터데커作 (신입생 환영)	홍여식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비" John Bowen作	오정열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한울 정성을 담습니다.

일신방직은 보다 성실한 제품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목화씨를 들여와 면(綿)의 옷을 입히주신 三優堂 文益漸(字: 日新), 高麗末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볶두정속에 숨겨오신 목화씨 다섯알이 白衣民族의 오랜 전통을 이끌어온 衣生生活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월은 바뀌어 면을 이용한 실과 웃감도 코너로 발전을 하였지만 文益漸의 기록 하신 뜻과 물레를 만들어 낸 조상의 습기는 실타래에 깊이져 변함없이 철백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뜻과 습기를 바탕으로 우리 日新紡織은 보다 성실한 제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울 한울을 정성으로 감은 면사, 화섬사, 혼방사는 물론 각종 면직물, 화섬직물, 혼방직물을 오늘날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조상의 습기를 실타래에 감는 20년 日新의 기업 정신은 곧 날로 세로와지고자하는 제품들로 표현됩니다.

① 일신방직주식회社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6-164번지·신풍빌딩

전화: 798-7211